



“국토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31일 오후 한국YMCA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단 170여명이 호남권역 615km 대장정을 마치고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국토순례단은 지난 24일 ‘생명의 어울림, 평화의 발구름’을 주제로 군산에서 발대식을 갖고 7박8일 동안 전남·북 주요도시를 방문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프랜차이즈 ‘갑질 횡포’ 몰아낸다

광주·전남경찰청 특별단속...가맹점주·아르바이트생 조사 업무방해·금품수수 등...가명 조서로 신고자 보호 주력도

광주·전남경찰청이 가맹점주·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갑(甲)질’ 횡포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아르바이트생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 횡포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광주·전남경찰청은 “1일부터 소상공

인·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대·유통업체, 고용주 등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청의 지휘에 따라 전국으로 이뤄지는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유통·관리업체나 상위 사업자가 가맹점주나 납품업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금품수수, 강요, 이권개입 등 행위 ▲입점 점포에 대한 임대

업자의 업무방해, 임대차 사기, 관리·시설비 횡령 ▲단기·과건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취업알선 명목 금품수수, 임금착취, 폭행 등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거래·고용관계 문제로 가해자를 적고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명(假名) 조서를 작성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관련 단체와 연계해 보호 제도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체제도 운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각종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

사안이거나 민사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특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은 공정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갑질 횡포는 서민경제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제도개선 등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군산대 입학금 첫 폐지...타 국립대로 확산 되나

새 정부 교육비 인하 기조 맞춰...사립대 동참 여부 관심

국립대인 군산대학교가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입학금을 공식 폐지한다. 국립대의 입학금은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립대보다 낮다는 점에서 군산대의 폐지 결정으로 다른 국립대에도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군산대는 최근 교무회의를 열고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신입생부터는 입학금(16만 8000원)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2017학년도 기준 군산대의 등록금 수입은 292억4000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입학금은 3억4000만원으로 1.2%가 채 안 된다. 등록금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지출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경우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 손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군산대의 설명이다. 나이군 군산대 총장은 “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학 등록금을 더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을 없애고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에는 대입 전형료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까지 인하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대가 처음으로 입학금을 폐지한 만큼 다른 국·공립대도 입학금 없애기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기준 국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9500원이다.

교육부 소관 국립대 39곳의 2015회계연도 세입 자료를 살펴보면 세입 총액 3조 9517억원 가운데 입학금 수입은 111억원으로 0.3%에 불과하다. 교육계에서는 이처럼 입학금 폐지가 현실화하면서 사립대 역시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사립대의 입학금이 100만원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대가 나서야 입학금 폐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의 경우 국가가 경성비 등을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면(세입의) 0.3%인 입학금은 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영기·군산 박근혁기자 nogusu@

인천공항 항공기 반입 금지품 집에서 택배로 돌려받는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보안검색대에서 기내반입이 금지돼 있는 물품이 발견되더라도 여행 뒤 집에서 택배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반입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금지 물품을 가진 여객은 보안검색대 옆 접수대에서 보관증을 작성하고 요금 3000원을 결제하면 택배사에 물품을 맡길 수 있다. 귀국할 때 되찾아가거나 추가 요금을 내고 원하는 주소로 배송시키면 된다. 공사가 이 같은 서비스에 나선 것은 작은 맥가이버칼이나 화장품, 영양제 등을 수하물로 보내지 않고 비행기를 타려다 보안검색을 받으면서 칼이나 총기류, 액체류는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이라는 점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여행객이 많기 때문이다. /김용희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1 해질 19:36
출몰 14:17 달지름 00:33

다시 폭염
돌풍과 함께 전동·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었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가평호리교비 24/34 보성 구름많음 24/31
목포 구름많음 25/33 순천 구름많음 25/32
여수 구름많음 25/31 영광 구름많음 25/34
나주 구름많음 25/34 진도 구름많음 26/33
완도 구름많음 25/31 진주 구름많음 25/33
구례 구름많음 24/33 군산 구름많음 23/33
강진 구름많음 24/32 남원 구름많음 24/33
해남 구름많음 24/33 흑산도 구름많음 23/28
장성 가평호리교비 24/3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중~남동 0.5~1.0	중~남동 0.5~1.0
남해 앞바다	중~남동 1.0~2.5	중~남동 1.0~2.5
남해 서부 앞바다	중~남동 0.5~1.5	중~남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중~남동 1.0~2.5	중~남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중~남동 1.0~2.0	중~남동 1.0~2.5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1:42	08:24
	14:12	21:28
여수	09:31	03:05
	22:56	16:58

◇주간 날씨

2(수)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	☀	☀	☀	☀	☁	☀
26/34	24/33	25/33	25/33	25/33	26/33	25/32

장마 끝 본격 더위...당분간 열대야

한차례 비 소식으로 잠시 주춤했던 무더위가 다시 33도가 넘는 폭염으로 찾아온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일 광주를 비롯한 전남 대부분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8~34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남쪽으로 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폭염특보가 다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보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1일은 또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는 일부 지역에서 대기 불안정에 따른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광주와 전남 내륙의 예상 강수량은 5~40mm다. 기상청은 2일에도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으며, 잦은 비 소식에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1일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지역이 있어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 등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인권위 “장애학생에 의료 편의 지원해야”

학교는 심각한 장애를 증폭으로 앓고 있는 학생에게 가래 흡인 등 의료조치 편의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나왔다. 학교 측은 “담임교사의 가래흡인은 불법의료행위”라며 “보호자나 보호자가 지정된 활동보조인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보호자가 학교에 올 수 없는 경우에만 보건교사가 도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가래흡인 조치는 하루 2~3회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임군의 학부모는 매일 2~3차례 /이종형기자 golee@연남뉴스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Hanwha Q CELLS 한화큐셀

시중가 600~650만원 **4만7천원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시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